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으로 여는 요한계시록-

다니엘 12:1-4, 요한계시록 22:18-21

정윤돈 목사님

서론 :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이유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가?

(1) 첫째는, 최근의 경향이다. 신천지에 현혹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 9월 18일에 잠실에서 신천지들이 모였다. CBS뉴스를 보니까, 북한 공산당처럼 매스게임을 벌였다. 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군인들이 사열하듯이 와서 이만희에게 경례하는데, 그런 집단에 있는 이들의 90%가 기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주장한다. 신천지가 가장 진도하는 자들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싸우고, 욕심부리고, 복음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것들 아닌가? 그러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장하고, 기존교회는 바벨론이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 안에 알곡들이 있으니까 추수해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존 교회의 잘못들이다. 틀린 내용들이고 이단들이 항상 쓰는 방법들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교인들을 빼내는 이단들은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다른 전략을 쓰고 있다.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몰래 성경공부를 하는 자들이나, 지난주에 교회 안 온 사람들은 끝까지 의심해서 추적해야 한다. 우리교회에서 대예배 반주자를 했던 분이 사실은 몇 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성경공부를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나간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다. 정말 신천지에 갔다가 빠져나온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 몸을 담았는데, 죄인이었습니까. 풀랐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간첩처럼 자수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 하는 사람은 빠져나온 게 아니다. 신천지는 '5년이고, 10년이고, 장로가 될 때까지 조용히 거기에서 봉사하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이제 대전이나 광주 같은 곳에서는 교회에서 새가족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을 읽는가. 모르면서 그냥 다니지 않나. 그냥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시대적으로 딱딱 구분하고, 사람의 마음은 땅이고 말씀은 씨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 것이다. 이만희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유제열의 증거장막이라는 이단 출신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운 구원자가 이만희, 보혜사라고 한다. 모든 순교자의 영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영들이 신천지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에게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구만 풀 수 있느냐 하면, 보혜사의 영이 임한 이만희만이 풀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기존교회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푸는데도 성도들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책을 열 권 이상 읽었는데, 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렸다. 똑같은 교단 안에서 찬원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달랐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기존 교인들은 99%가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주면 그게 맞는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신천지 영상을 내가 좀 봤더니, 기존의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면서 '봐라, 이렇게 틀렸지 않나'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 내용은 사실 말을 안 한다. 오픈도 안 한다. 다른 목사님들의 틀린 것을 깎아내려서 공격한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른다. 그것이 신천지 부흥의 key가 된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지가 신천지를 부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목회자들부터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한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나도 오랜만에 공부하는데 시간이 무지 많이 걸렸다. 설교는 빨리 끝내야 하는데, (웃음) 100시간은 해야 하는데, (웃음) 나는 신천지 때문에 신학도 바뀌었다. 옛날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천지에게 넘어가 버리면 구원 받을 것인가? 90% 이상이 신자들이 옮겨간 것이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구원을 받았는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끝인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나만 구원받으면 끝인가? 나는 오직 예수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한국 교회의 건강한 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다 해석이 달랐다.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만든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면 칼빈이 몰라서 주석을 안 했겠는가? 아니다. 500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 분분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게 되면 싸움이 나니까, 교리 때문에 화형을 당하던 것이 일상이던 시대 아닌가? 그때의 문화와 법치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칼빈도 종교재판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주장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일상적인 일이었기도

했지만, 그 사실 자체도 옳다.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자가 제네바에서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 결정은 제네바 시의회가 한 것이고, 칼빈은 그 결정을 할 권한도 없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스위스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르베투스에 대해서는 제네바로 오지 말라고도 이미 편지를 썼었다. 그것을 본인이 굳이 어기고 왔다가 죽은 것이다. 지금은 녹음도 하고 녹취록도 있는데도 사실에 대한 공방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500년 전에는 오죽했겠는가? 비논리적인 것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역사와 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게 되면 안 된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칼빈이 조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개혁교회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본 데서 나왔다. 통일교, JMS, 전도관 같은 단체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보혜사다' 하고 이야기한다. 이만희가 쓰는 모든 용어는 과거의 이단들이 다 썼던 단어들이다. 신천지들에게 이것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 이만희는 한 번도 정통 교회, 바른 교회에 다닌 적이 없다. 오직 이단교회만 다녔다. 배운 게 전부 이단이었다. 그것을 잘 배우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배워서 창업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만희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부지런하면 안 된다. 게을러야 한다. 그런데 보면 꼭 반대다. (웃음)

(4) 그러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3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다. 신천지에게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 물어보면 모른다. 모르면서 분위기 속에 밀려드는 것이다.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워낙 모르니까 바꿀 것도 없는데, 신천지는 모든 것을 걸어서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뒤집어 주면 충격을 받고 울면서 회개한다.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 예를 들어보자.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는가? 그렇게 해야 이만희가 메시아가 되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주장한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육으로 부활하면 못 들어가니까, 영으로만 부활해서 이만희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이만희에게만 있다고 한다. 이게 신천지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이다.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웃음) 그런데 누가복음 24:39을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성경은 정말 진리라는 것이, 이만희 신천지가 나올 줄 어떻게 아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신천지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제대로 읽어주면 신천지는 맨붕이 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을 개종시키는 것이다. 이것 받아들이는 데 한참 걸린다. 기존 교회에서 10년, 20년을 다녔던 사람은 금방 깨닫고 바꾸는데, 청소년 때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 없다, 진리 필요 없다, 신천지가 좋다' 하면서 안 나온다. 그게 문제다. 불교를 믿듯이, 이슬람교를 믿듯이 신천지를 믿고 있다. 신천지가 지금 젊은 청소년들을 공격한다. 목사 자녀를 공격한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신천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대담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으니 그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란다. 다행히 천명을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이다. 신자들이 다 부족했다. 못한 것이 많았다. 하나님이 불러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한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목회자 자녀들이 가정에서 목회자를 존경하기 쉽지 않다. 총회 할 때 여러분이 봤지 않나? 싸움을 얼마나 잘 하는가. 그것은 별 일도 아닌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와서 이야기하면 넘어가 버린다. 그런 배경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답을 줘야 한다.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역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높아져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평계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이,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보는데 끝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 (웃음) 마지막 부분 없는 영화를 여러분은 보셨는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찢어버렸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신앙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음녀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 바벨론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불완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 요한계시록의 내용

- (1)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다.
- ①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누구의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 ② 이것은 언어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셔서 그림이 없는 계시가 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림 같은 것이 필요가 없었다. 음성으로, 글로 주는 계시가 있다. 그리고 환상으로, 그림으로 주시는 계시가 있다. 역사로 나타난 계시도 있다. 성경 자체가 역사로 나타난 계시다. 구약성경의 역사서, 사도바울의 전도자의 삶 자체, 요셉의 삶 자체가 계시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앞부분 일곱 교회에 주는 계시는 글로 준 계시가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림으로, 환상

으로 보여주시는 계시다. 특히 여러 군데 화면에서 동시에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 앞으로 영화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영화관 화면에 스크린을 달아 놓고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시점에서 여러 그림이 동시에 나오는 것도 있다.

③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으로만 이해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온다. 소설만 해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섞여서 서술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결론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서론이 뒤에 나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신천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그 이론을 금방 깨부술 수 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것이다. 여호와와 증인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고 가르쳤다. 아시아어나 여러 곳에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다. 신천지도 증거장막,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 개념은 천천년설, 천년왕국론의 개념으로 이미 들어있고, 천 년 후에는 사단이 반드시 놓인다고 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개인적, 역사적으로 다 함께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면 사단이 임해 버린다. 천년왕국이었다가 사단이 다시 놓인 것이다. 이게 개인적인 적용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천년왕국 같다. 돈만 있으면, (웃음) 그런데 갑자기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사단이 놓이게 된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일본이 딱 그랬다. 전쟁이 계속되었으면 전 국민이 굶어죽을 뻔 했다.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굶어죽는 사람들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절대 말을 안 들으니까 살아남았을 텐데, 일본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 한국사람 같으면 전쟁 일어났을 때, 1천 명 죽으면 바로 항복했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2만 명 병사들 중에서 200명 외에는 다 전사했다. 일본이 천국이었다가 그렇게 바뀌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역사적인 관점, 시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6.25를 겪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때와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최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2) 2장에서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3) 5장에서 16장까지는 환난, 재앙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온다. 일곱 인을 떼는 재앙,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온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오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다. 나라에도 시대에도 그런 재앙이 있고, 말세 때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시간을 직렬적으로 보기도 하고 병렬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다중적으로 해석해서 보아야 한다. 성경은 대단한 책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집약시켜놓은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게, 민족에게, 국가에게,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다. 그 눈을 가지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보라. 나도 몇 십 번을 다시 읽었다. 아직도 계속 해석하고 있다. 어렵지 않다.

(4) 7장에, 너무 고난만 있는 것 같으니까 쉬어가는 타임이 있다. 7장에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12×12하면 144가 된다.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제자를 곱한 것이다. 또 성전의 규격이 12규빗×12규빗=144규빗이다. 거기에 곱한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이라는 상징이 있다.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숫자인데, 모든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라는 것은 증인이다. 증인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숫자에는 다 상징이 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도 옛날에는 탑 두 개가 있고 그랬지 않나? 탑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 두 개 있으면 증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는 것이다.

(5)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사단이 쫓겨난다. 옛 뱀, 마귀가 쫓겨난다. 사단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 세력을 꺾어 버리실 것이다.

(6) 13장에는 666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세상 사랑, 돈을 사랑, 권력을 사랑하고 있으면, 마귀가 자기 소유라고 인(印)을 쳐 버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종들에게, 가족에 나 자기 재산에 자기 소유라고 인을 치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을 받으시기 바란다.

(7) 14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끝까지 추수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온다.

(8) 15장에는 증거장막성전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다 보내시는 것이다.

(9) 16장에는 일곱 대접에 의한 재앙이 나온다.

(10) 그러면서 결국에는 17, 18장에는 음녀, 바벨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사단은 권력, 타락, 음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이 음녀, 바벨론과 바벨탑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다.

(11) 그리고 19장에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 잔치 장면이 나오고,

(12)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반드시 사단이 한 번 놓인다.

(13) 21장에 보면, 이것이 끝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다.

(14) 22장에는 이 천국의 모습을 그려서 보여준다.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힘든 것, 재앙, 이 어려운 인생이 빨리 끝나고 천국이 빨리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2.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

(1) 먼저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 7은 완전 숫자다. 24는 12+12, 구원받은 백성을 뜻한다. 4는 동서남북, 즉 전체를 말한다. 네 천사가 나오고 그러지 않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 우주적인 것을 말한다. 144000은 12×12에 1000을 곱한 것이고, 2는 증인의 숫자다. 10도 역시 완벽을 말한다. 면류관은 권세를 말한다. 666은 인간의 수, 사단의 수다. 77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다. 숫자에는 다 상징이 있다. 그런데 144000은 상징이면서 천 년 왕국은 천 년으로 글자 그대로 받으면 되겠는가.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범하는 실수다. 말, 용, 뱀, 음녀, 다 영적인 상징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상징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해야 한다.

(2) 또 동물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가 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용이나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은 다 재앙이고 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흰 말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네 마리가 다 재앙이고 질병이라고 봐야지, 네 마리 중 세 마리는 재앙이고 한 마리는 아니라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네 마리 말은 다 재앙을 말한다. 여러 가지 비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직유법으로, 은유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단들은 일관성 있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짐승은 용의 종개다. 사자, 곰, 뱀, 표범, 이빨 같은 것들은 강한 것을 말한다. 로마의 권력,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권력과 같은 강한 힘을 말한다. 금관, 면류관은 영광, 힘, 권력을 상징한다. 이것을 알고 보면 해석이 편해진다. 이렇게 말해도 안 읽으시겠지만, (웃음) 꼭 읽으시기 바란다.

(3)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재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재앙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우리도 많은 재앙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

(4) 시간적인 흐름을 또 잘 이해해야 한다. 직선적인 흐름,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 말세지말(末世之末),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시간적인 관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적용되는 관점, 이런 영원한 시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아야 하는지 보고 묵상해야 한다.

(5)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대부분 성경 자체로 해석되게 되어 있다. 400여 구절 중에서 300구절이 구약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다. 요한계시록 7:1에는 바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람에 대한 것이 스가랴 6:1에 나온다. 구약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다. 스가랴 6:5에 보면,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라고 했다. 말이 곧 바람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람이라고만 했는데, 그 바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서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이것이 말로, 병거로 부원되어 설명되고 있다. 말에는 빠르다는 의미가 있지 않다. 이 바람은 말과 같아서, 네 말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말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임하는 전쟁과 재앙이 바람같이 몰아닥친다는 것이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또, 신약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11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또, 계시록 자체에서 해석해 주고 있다. '새벽별을 주리라고 했는데,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22:16을 보라. "나는 다윗의 뿌이로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정확하게 해석을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다.

결론 : 요한계시록의 복음적인 의미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천명목표와 미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적인 의미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천명목표와 미션이 무엇이었는가. 이 공부를 계속하시기 바란다.

(1) 첫째, 요한계시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단 사이비에게 변증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실 만큼 공부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대가가 여러분 평생도 중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2) 둘째, 이 세상의 어떤 문제 재난 재앙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긴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란다.

(3) 셋째, 우리는 시도 요한처럼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단도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잘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봤는데, 두 시간 반 짜리도 들어보고, 8시간짜리 강의도 들어봤다. 그런데 60시간 강의한 분도 있고, 90시간 강의하신 분도 있었다. 그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 (웃음) 계속 재앙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으면 나가지 마시고, 누리시고,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단도 살리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복음, 참 진리, 참 그리스도 안으로, 참 전도와 선교 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사수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천명, 소명, 사명, 절대 목표, 절대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